



보도시점

2026. 3. 31.(화) 16:00

4. 1.(수) 조간

배포

2026. 3. 31.(화) 09:00

청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의 새 판을 쓴다!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 모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청년 인력 참여가 필요한 마을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 등 역량을 갖춘 청년을 연결하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하여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과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참여를 통해 활성화가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하였다.

청년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26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소관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도협의회 간 협약을 체결한 후 전문 컨설팅사의 지원을 받아 참여 청년은 해당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특색 있는 소규모 농촌관광 프로그램 기획·개발, 운영,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참여 희망 마을에 신청한 장성 별내리마을 정숙락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이 참여하여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활동, 지역 공동체 등 자원을 활용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이 참여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과 협업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문 컨설팅 연계와 OTA 플랫폼 활용 지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상품화를 돕고 마을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문기 (044-201-1581)
		담당자	사무관	이승우 (044-201-1592)